



## 광주시청 기보배 '神弓 계보' 있다

국제양궁연맹 발표 세계랭킹 1위 ... 남자 1위는 김우진

한국 여자 양궁의 간판 기보배(23·광주시청)가 처음으로 세계랭킹 1위에 올랐다. 1일 국제양궁연맹(FITA)은 5월 여자부 리커브 세계 순위를 발표하고, 기보배가 윤옥희(예천군청)와 주현정(현대모비스·곡성출신)을 제치고 1위가 됐다고 밝혔다. 기보배는 이날 이날 발표된 세계 순위에서 랭킹 포인트 24만7500점을 쌓아 윤옥희(22만500점)와 주현정(20만8250점)을 여유있게 넘어섰다. 기보배는 2009년 처음으로 대표팀에 선

발돼 2010년 아시안게임 여자 단체전 금메달, 월드컵 여자 개인전 금메달을 따내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올림픽 결승만큼이나 어렵다는 올해 국가 대표 선발전에서도 광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 3중사 중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안양 출신으로 광주여대로 진학하면서 물이 올랐고, 광주시청 소속으로 활약하면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윤옥희와 주현정은 올해 1차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지난 4월부터 1, 2위에



김우진

서 한 계단씩 내려갔다. 이들은 최근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해 월드컵과 세계선수권대회 등 올해 국제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같은 날 발표된 남자부 리커브 세계 순위에선 김우진(19·청주시청)이 25만6500점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4월 순위 8등에서 무려 7계단이나 뛰어올랐다. 김우진은 작년에 고교생으로서 태극마크를 달고 FITA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석권한 뒤 올해도 1차 월드컵에서 2위에 올랐다.

임동현(청주시청·24만6200점), 브래디 엘리슨(미국·23만8000점)과 오진혁(농수산홍소영·19만7850점)이 뒤를 이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KIA 좌완 선발 '불안불안'

양현중·트레비스 잇단 부진  
주말 SK전 힘겨운 원정 예고



양현중



트레비스

KIA 타이거즈가 힘겨운 주말을 앞두고 있다. 흔들리는 좌완 선발진 때문이다. KIA는 올 시즌 새로운 외국인 투수 트레비스를 영입하면서 양현중과 함께 '도종-양병 좌완 쌍포' 선발체제를 구축했다. 양현중은 지난해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배정투수로 김광현(SK)의 부상 공백을 완벽하게 메워줘 올 시즌 많은 기대를 받았다. 양현중도 "팀 좌완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10승에 도전하겠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불펜으로 투입됐던 4월 3일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3타자를 상대로 3개의 볼넷을 내주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개막 이후 4경기에서 양현중이 기록한 방어율은 11.6. 이후 타선의 화끈한 득점 지원을 등에 업고 5승 고지를 밟았지만, 김주형의 결승 스타리온으로 행운의 승리를 안았던 5월 13일 롯데전에서 한 이닝에만 6실점을 하는 등 들쭉날쭉했다. 제구 불안이 계속되자 일선 투병중인 칸베 전 투수 코치까지 달려와 밸런스 잡기에 나섰다. 이렇다할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5월 31일 LG와의 원정경기예 선발로 나

섰던 양현중은 1회부터 홈런 두 방을 얻어맞으면서 3회를 채우지도 못하고 또 조기 강판됐다. 선발출전 10게임에서 양현중이 소화한 이닝은 47과 3분의1이닝에 불과하다. 양현중의 출주는 투구에 마운드 전체가 출렁이고 있다. 로테이션상으로도 양현중은 LG전에 이어 5일 SK전까지 소화해야 한다. 올 시즌 한 차례 대결에서 7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기록했지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또 다른 좌완 선발 트레비스는 어쩔 때때로 올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24일 넥센과의 경기 이후 어깨 통증으로 2군으로 내려갔다. 통증이 가시면서 불펜피칭을 소화하고 있지만 엔트리 재등장은 최소 강등 10일 경과 후에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4일에야 가능하다. 주말 SK전이 복귀무대가 될 수 있다. 트레비스는 타선 불발로 패전투수가 되긴 했어도, 지난 5월 6일 SK전서 6과 3분의2이닝 3피안타 4사사구 2실점(1자책)으로 켈리티스타트를 끊었다. 7개의 탈삼진도 뽑아냈다. 하지만 열을 공백과 불안한 제구가 복귀전의 변수다. 그는 올 시즌 공격적인 피칭으로 52개의 탈삼진을 장식했지만 사사구도 31개를 기록했다. 한국의 스트라이크존 적응 단계이기도 하다. 그동안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편한 심기를 노출하며 경기 초반 힘들게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주말·휴일 출력이 예정된 트레비스와 양현중의 왼쪽 어깨에 팬들의 격정 어린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이슬기 천하' 계속될까

단오장사씨름, 백두급 3개 대회 연속 우승 도전

씨름 백두급(160kg 이하)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이슬기(현대삼호중공업)가 3개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3일부터 나흘간 울산동천체육관에서 열리는 단오장사씨름대회는 이슬기가 독주체제를 이어갈 수 있을지를 시험하는 무대다. 이슬기는 지난 2월 설날장사대회에서 최강자 이태현을 물리치고 정상에 오른 데 이

어 지난 4월 보은장사대회에서도 우승했다. 이슬기는 키 188cm, 몸무게 130kg으로 백두급 선수로는 큰 체구가 아니지만 스피드와 기술 씘름으로 모래판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는 팀 동료이면서 강력한 라이벌 윤정수(현대삼호중공업)가 출전해 이슬기를 견제한다.

2007년 천하장사인 윤정수는 어깨 부상 때문에 4월 열렸던 보은장사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백두장사 결정전은 5일 예선전을 거쳐 8강 진출 선수를 가리고 6일에는 8강전부터 결승전이 있다. 금강급(90kg 이하)의 최강자로 군림했던 이주용(수원시청)은 한 체급을 올린 한라장사(105kg)에 도전장을 던져 관심을 끌고 있다. 한라장사는 5일에 가려진다. 앞서 3일에는 태백장사(80kg 이하), 4일에는 금강장사 결정전이 열린다. /연필뉴스



## '무박 2일' 인간 한계에 도전

MTB 300울트라 4일 광양서 출발

'MTB 300 울트라라일 위원회'가 주최하고 광양시·전남도가 후원하는 '제3회 MTB 300울트라 산악자전거 대회'가 4일부터 5일까지 무박 2일간 진행된다. 대회에는 70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한다. 150km 하프코스는 4일 새벽 3시 광양공설운동장을 출발해 광양 구봉화산과 백운산, 지리산을 거쳐 오후 6시까지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한다. 300km 풀코스는 광양공설운동장에서 순천 조계산까지 왕복하여 다음날인 5일 오후 3시까지 도착해야 하는 난코스다. 이번 코스는 풍광은 빼어나지만 임도와 등산로를 달리도록 되어 15% 정도 완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완주자에게 '영웅(HERO)'의 칭호가 주어진다. 지난 대회에는 참가자 600명 중 103명이 영웅이 됐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 신지애 "이번엔 우승"

슈라이트 LPGA 클래식 출전

신지애(23·미래에셋)가 다시 한번 시즌 첫 우승에 도전한다. 신지애는 3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뉴저지주 갤러웨이 돌체 시류 골프장(파71·6150야드)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슈라이트 LPGA 클래식에 나선다. 신지애는 올 시즌 준우승만 3번 했을 뿐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다. 올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세계 1인이었던 신지애는 2주 전 사이베이스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세계랭킹 3위까지 밀려났다. 이 대회에선 1999년 박세리(34)가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2006년에는 이선화(25)가 LPGA 투어 통산 첫 우승을 차지했다. /연필뉴스

## 한효희 창던지기 국제대회 첫 우승

한효희(해남군청)가 국제육상대회 첫 정상을 밟았다. 한효희는 지난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대만 카오슝에서 열린 2011 대만국제육상경기 여자부 창던지기에서 49.43m를 던져 1위를 차지했다. 한효희는 한국체대 졸업 후 포항시청을 거쳐 올 초부터 해남군청 소속으로 뛰고 있다. 해남군청 육상팀은 김남식 감독의 지도 아래 한효희, 이미영, 김현영 선수가 소속되어 있으며, 전라남도체육대회 2관왕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영석기자 dia@

## 아름다운 결혼의 시작 신양파크 호텔과 함께

Cool Wedding Event

웨딩/특전

허니문룸 1박  
조식2인(웨딩 전일 또는 당일)  
온돌 폐백식 / 폐백용품제공  
아이스카빙 제공

웨딩 축하 케이크 제공  
꽃길 서비스  
특수 연출 서비스  
신양 허니문 카드 증정

Special Rate

뷔페 ₩29,000 / ₩33,000

양식 ₩33,000 (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35,000 (에피타이저+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이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 눈부심과 설렘으로 다가오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기간 | 2011년 7월 1일 ~ 9월 30일 예약문의 : Tel. 062)228-4711~2 / 062)221-4101~3